

도교육청 내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

전남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읍 단위 이하 초·중학교와 고등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올해 현재 도내 초·중학교, 읍 이하 및 광양시 동단위 소재 고교

목포·여수·순천·나주 45개 학교 추가 혜택

인건비·운영비 전액 지원...259억 소요 예정

까지 전체 830개 학교 중 785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목포, 여수, 순천, 나주지역 45개 학원한다.

교 학생 2만8795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급식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다.

추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59억원 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자치단체와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정민재 전남도교육감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윤장현 시장,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실시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서 보행방법 등 안내



윤장현 광주시장은 11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시설 이용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은 광주시에서 매년 증기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관내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윤 시장은 이날 교육에 앞서 효령노인복지타운 식당을 방문해 배식봉사를 하고 이어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불편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교통사고 예방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보고 느낀 어르신 교통사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올바른 보행방법과 각종 교통사고 예방 사항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겨울철에는 눈길 보행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를 잘 살펴야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좋다”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돋고자 광주시는 올해 여름에도 경로당에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에도 매월 두 차례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전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이용객 3만명 첫 돌파

버스 1대당 평균 32.3명 탑승... 지난해 比 49% 늘어

전남도는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올해 계획된 960회의 운행을 모두 마친 결과 총 3만 983명이 이용해 버스 1대당 평균 32.3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 21.7명이 탑승한 것보다 49%가 늘어난 규모다.

남도한바퀴는 지난 2014년 5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사업 초기에는 탑승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지난해 평균 탑승 인원이 20명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 이용 인원 3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전남도는 섬 코스 확대를 올해 남도한바퀴 운영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까지 여수 금오도 1개 코

스를 운영하던 것을 옮 들어 고흥 연홍도와 거금도유람선,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코스를 더해 많은 관광객이 섬 관광의 매력을 느끼도록 운영했다.

섬 코스는 총 223회 운행돼 8824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1회 운행할 때마다 45인승 버스에 평균 39명이 탑승한 셈이다.

또 관광객들의 음식점 이용, 해산물 등 특산품 구매로 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테마 코스로 처음 운행한 아경코스도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했다.

총 4개 코스를 73회 운행해 2398명이 탑승해 1대당 32.8명이 이용한 꿈이다.

별교꼬막거리, 영입낙지음식거리 등 음식 특화거리와 야시장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여수 해상케이블카,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 등 야간에 볼거리가 많은 관광지를 운영해 인기를 이끌었다.

특히 여름철에 낮 시간대를 피해 야경 코스로 밤길을 돌리는 관광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도한바퀴' 운행 4년차를 맞아 그동안 누적된 홍보효과와 관광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남도한바퀴의 이용 편의성, 9900원의 저렴한 이용요금 등이 입소문을 통해 퍼지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김정환 기자



정순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남도한바퀴에 여행 트렌드와 이용객 선호도를 반영해 보완해온 결과 3만 명 달성이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2018년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범 코스를 운영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나주·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영업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지유통센터
30동 217호(풀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창업상담>>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동구,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푸드아트 놀이

광주 동구가 지난 9일 학동 아이파크 북카페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푸드아트 놀이’ 종강식을 개최했다.

미술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부터 부모와 아동 등 20팀 50명이 참여해 ▲푸드재료로 우리가족과 이웃을 소개하는 ‘푸드아트’ ▲구연동화를 듣고 푸드재료로 동화를 만드는 ‘푸드동화’ ▲꼬마요리사가 되어 주먹밥과 샐러드를 만드는 ‘요리활동’ ▲가족, 이웃과 함께 피크닉 샌드위치를 만드는 ‘가족초대’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대화가 부족한 아파트 주민들의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요리를 만들며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서구,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광주 서구가 오는 12일 서구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방형 경로당 운영과 보고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한다.

12일 오후 1시 반부터 3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발표회는 문화와 樂이 있는 활기찬 경로당 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리게 된다.

개방형 경로당이란 그 동안 노인들의 접유불로 알려진 경로당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여 문화·교양·복지·취미활동 등을 함께하는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이번 개방형 경로당 운영성과 보고회는 18개동 18개소 경로당이 참여하게 되며, 올 한해 추진해 온 우수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우리 구 문화시설단 합창단원 공개 선발

광주 남구는 잠재된 음악적 소질을 계발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함께 할 남구 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한달여간 남구 합창단원 신규 회원 공개모집을 위한 응시원서가 교부된다.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소프리노와 메조소프리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등 20명 이내다.

합창단원에 함께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구청 7층 문화관광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북구, 우리동네 보물창고 공유방 운영

광주 북구가 필요한 물품들을 주민들이 함께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무실에서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한 ‘우리동네 보물창고 공유방’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색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쓰고 나누는 공유방을 통해 주민 누구리도 전동드릴 등 대형 공구류와 함께 각종 캠핑용품, 앰프세트 등 필요물품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향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기증 및 교환 등을 통해 공유물을 늘려갈 계획이다.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패러디 페스티벌 개최

광주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가 오는 16일부터 ‘패러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럭키소촌 차세대 작가 레지던스’ 공모로 선정된 1기 입주작가가 갖는 두 번째 기획전시로 오는 31일 막을 내린다.

전시회는 소촌아트팩토리 입주작가 5명이 각자가 정한 세부 주제의 창작을 19점을 선보인다.

패러디 페스티벌 개막 행사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연다. 여기에 참가하면 입주 작가들의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이 작품에 참여해 자신만의 콤볼을 그리는 ‘패러디 아트워크’도 함께 진행한다.

개막 행사와 ‘패러디 아트워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산구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패러디 페스티벌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임형택 기자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 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